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여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0년 7월 1일 (수) 제 796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조영철 · 편집인/ 김병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설교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재일대한기독교회

<고린도전서 3:1~15>

이원중 목사 (교토남부교회 협력목사)



인류 문명은 코비드19의 대유행(팬데믹)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6월 17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확인된 감염자가 8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44만 명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국가간 혹은 지역간 왕래와 교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질병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인종 차별, 빈부 격차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인류 문명에 새로운 삶의 방식(뉴 노멀)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 역시 이러한 변화와 고통을 운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다수의 교회가 현장 예배를 한동안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이전과 같지 않다. 예배를 드려도 교인들과 이전처럼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고 있다.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해지고, 예배 출석이 줄어들면서 교회의 재정 상황 역시 악화되며 교회학교도 운영이 극히 어려워졌다.

일본 사회의 민주주의와 경기의 후퇴, 한일관계의 경색, 교인들의 경제적 곤란, 교회의 재정 감소, 이런 와중에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특별영주자의 귀화와 한국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축소로 인한 전도의 기회 감소. 이것이 코비드19를 계기로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가 마주한 현실이다.

고린도전서 3장 13,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불의 시험을 언급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공적을 세워왔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불의 시험을 견딜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다. 1908년 이후로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일본에서 그리스도라는 참된 터에 교회를 세우고자 애써 왔다. 코비드19로 인해 변화된 세계, 문화, 습관의 거친 불은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세워 놓은 교회를 짧은 시간 안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불의 시련을 이겨 낼 만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재일대한기독교회 내의 연합과 상생의 영성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대해 책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기와 분쟁이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 안에도 이미 개 교회 안에서도, 몇몇 특정한 교회로 인해 큰 내용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지방회가 임직원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기본적인 행정 업무조차 중단되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개 교회, 지방회, 또 총회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다름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화해하고, 상생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의 분열 내지는 방치는 결국 교회의 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둘째, 이 연합과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인간을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데에만 그친다면 아직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은 이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임의 수가 적어지고, 시간이 짧아진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자신이 성령의 전임을 더 자각하며 가정, 직장,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당과 현장 예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 자신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성육신적 신앙이 이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교회는 이제 온라인과 SNS를 더욱 활용해야 한다. 미디어 사용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미국의 교회들조차도 15%만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교회, 재일대한기독교회 중에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교인들과,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는 더욱 적을 것이다. 그러나 SNS는 지금의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제 교회는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데에 온라인과 SNS를 사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말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시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일대한기독교회는 한일간의 유대와 평화를 위해서 다시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가 사라진 곳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진정한 사명이다. 한일간의 무지와 적대가 팽배해 가는 현재 상황이 정치와 경제의 힘으로 한국과 일본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일구는 것이 바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사명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 살도록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코비드19의 불과 같은 시련을 이겨내어 정금과 같은 재일대한기독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일하고자 한다.

公告 2020年度 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

「2020年度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を以下のように実施します。詳細の案内と請願書などは総会のホームページ (<http://kccj.jp>) をご参照ください。

- 一. 日 時 : 2020年9月28日(月)・オリエンテーション : 13 : 00
・筆記試験 : 13 : 30 ~ ・面接 : 15 : 00 ~ (予定)
- 二. 場 所 : 在日韓国基督教会館 (KCC)

三. 申 請 : 2020年9月1日 (必着)

四. 提出先 : 総会事務局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55

電話番号 : (03) 3202-5398 FAX : (03) 3202-4977

神学考試委員會

委員長 金聖孝 書記 韓世一

특 집 신형코로나19의 감염 위기와 교회 예배 현상

관동지방회 후나바시교회 장경태 목사

코로나19가 확산과 더불어 총회에서 지침을 근거로 3월부터 현장예배와 인터넷실시간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능한 단정한 복장으로 교회에서와 같은 순서로 함께 움직일 것을 요구하였고, 인터넷 예배 참석 확인을 위해서 예배 후 SNS상으로 보고를 해 줄 것을 부탁하니 많은 교우들이 실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문자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사진 등을 보내 주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동시에 몇 명이 접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실시간 접속자수를 통해서 현장 예배자와 실시간 예배자를 종합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단점으로 지적된 것은 동시통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통역은 현장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에게만 제공이 된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는 목사 혼자서 유튜브 조작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좀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신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중부지방회 기후교회 고성목사

코로나19로 인하여 기후교회는 지난 3월1일부터 예배 단축화 및 1,2부 각 예배시간 마다 입장인원 10명 이하로 제한하기, 교회 입장 전 마스크 착용, 전신소독제 분무, 알코올 손소독제 사용, 일회용 장갑 착용, 예배 전 후로 교회 전체 소독, 성찬식 및 성가대, 애찬식 중단, 철저한 환기를 통하여 세심한 방역 가운데 4월12일 부활절까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기후시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하여 4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 교회학교를 포함한 전 교인이 교회당 예배를 일시 중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실시 하였습니다.

비상사태 해제 후 6월7일부터 비접촉식 체온계를 운용하는 등 더욱 엄격한 방역체계 가운데 다시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공격 예배 이외의 계획되었던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 교회 운영 및 재정적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할 상황에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서지방회 교토교회 임명기 목사

4월12일 부활절예배 이후 모든 예배를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매주 토요일까지 설교(한국어, 일본어)를 홈페이지에 올려,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때와 같이 목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기간 중에는 주보, 설교원고, 주간 성경공부 용지를 주일전에 각 신도 가정에 도착하도록 우송하였습니다.

6월부터 예배당에서 CS예배를 포함해 모든 예배를 재개하였다. 특히 주일예배는 1부(9:30 시작, 한국어)와 2부(11:00 시작, 일본어)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과 점심식사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검은, 소독액 배치 등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외의 모든 행사는 자숙, 6월부터 주일예배를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관서지방회 오사카북부교회 조영철 목사

저희 오사카 북부교회는 코로나 19의 감염 확대에 따라 3월 2번째 주일(8일)부터 주일 오전 11시의 합동예배 이외의 모든 예배, 기도회, 각종 집회를 당분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도들을 위해 주일 가정 예배문(한국어, 일본어)과 주보를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온라인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도들을 위해서는 우편으로 각 가정에 보내고 있습니다.

4월7일에 일본정부에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예배(12일)까지는 교회에서 드렸고, 4월 3번째 주일부터는 예배 담당자 및 온라인 예배 관계자만을 중심으로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5월 말, 긴급사태 해제로 인해 성령강림주일인 5월 31일부터 자숙이 아닌 자원으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신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예배와,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도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6월 28일 주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주일 오전예배를 합동예배가 아닌 이전과 같이 2부(1부:일본어, 2부:한국어)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전 교인이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관서지방회 나니와교회 김종현 목사

예배 : 신도들과 함께 하는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노숙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집회는 코로나19감염이 진정될 때까지 중지하고 대신 공원과 거리에서 2회 집회를 열고 주먹밥 컵라면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시간 이외는 교회당 출입을 금지하고 용무가 있는 사람만 전화 인터폰으로 연락한 후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배시간에는 환기를 위해 교회당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당 출입시 수시로 소독을하도록 소독제를 놓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리를 두고 앉도록 색지로 표시하고 반드시 예배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고민 :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기에 교인들 중에는 주의하도록 안내해도 코로나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관서지방회 히라노교회 김종권 목사

코로나이전 예배출석은 주일평균 35명 정도였으나, 코로나19이후에는 예배당 현장 예배 인원1/3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예배 형태는 4월 세째 주부터 현장예배와 더불어 실시간영상예배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주일오전 예배 : 전교인대상(현장예배와 영상예배 병행), 주일 오후 : 청년회예배(현장예배와 영상예배 병행)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사용후 입장, 발열 체크는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철저한 환기, 찬송은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부르거나 작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문제점은 1)영상예배 참석대상자들의 참여율저조 및 예배집중도의 차이를 확인, 2)사회적 거리 유지 준수 관계로 교회적 거리 유지가 침해 당해 성도간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해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교

회의 정체성에 훼손, 3) 큰 감소는 없었지만 장기화될 경우 우려스러운 상태 등입니다.

장점으로서는 코로나19관계로 영상 매체를 이용한 회의 및 성경공부가 활발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영상 매체를 통한 교회간의 긴밀한 협조 및 연대, 정보 교환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교회와 목회자에게 총회차원 혹은 지방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나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서부지방회 가와니시교회 이 중 재 목사

코로나상황에도 주일예배는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주일 점심과 오후찬양예배 화요일 새벽기도 수요성경공부 금요기도회와 교회 공식적인 행사는 3월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3밀을 피하기 위해서 주일 오전예배를 1,2부로 나누고 창문을 열고 예배 지정석에 앉아 예배 드리게 하고 있으며 참석하는 신도들은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소독을 의무화 하고 있고, 70세 이상, 지병이 있는 분, 감염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4월-5월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가 6월부터는 예배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2시로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모든 집회와 모임을 6월부터 재개하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수와 헌금은 약간 줄어들었으나 지금은 90% 이상 회복된 상태입니다. 전도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그동안 진행되었던 오야코카페와 오픈채플 등의 전도활동이 중지되었지만 전도지 포스팅과 가족, 지인 등의 전도활동에는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코로나 기간에도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서부지방회 히로시마교회 나카에 요이치 목사

히로시마 교회에서는 코로나 대책으로서 교회 활동을 3월 8일부터 주일예배만 드리고 그 외의 애찬회나 성서연구회, 기도회 등의 모든 프로그램은 휴회하였습니다. 그동안 예배 출석은 반수의 20명

정도였습니다.

4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는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예배는 YouTube를 통한 전송과 함께 주보와 설교 원고를 발송하는 등의 대응을 해 왔습니다.

6월부터는 예배당에서의 주일예배는 재개하였지만, 주일예배 이외의 프로그램은 아직도 휴회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교회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9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배 출석 인원은 70%인 약 30명 정도입니다.

히로시마 교회에서는 예배 후의 애찬회를 예배의 일부(연장)로 여기며 특히 신도의 교제를 중요시 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예사롭게 행해 온 것을 하지 못하는 지금, 예배 형식이나 교제의 방법 등을 다시 생각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또 홈페이지의 보완이나 적극적인 소셜미디어의 활용 역시 조금씩 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남지방회 후쿠오카교회 김 인 과 목사

후쿠오카시의 긴급사태선언 하의 외출 자속 요청에, 전염확산방지라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회는 부활절(4월12일)부터 모든 예배당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목요일 저녁에 소수의 인원이 모여, 주일예배를 드리고 이를 촬영 편집하여, 주일예배를 주일 오전 11시에 각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서, 일제히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화요일에는 수요기도회 녹화 편집, 목요일에는, 주일예배 녹화 편집이라는 업무가 더 발생하였지만, 차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도들에게 영적인 큰 힘이 된 것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발송되는 새벽기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보냈습니다.

5월14일, 후쿠오카현의 긴급사태 해제에 따라 5월17일 주일부터는 11시 예배부터 예배당에서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에는, 전 교인 마스크 착용, 소독, 체온체크, 손소독은 물론 최선의 준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출석 못하는 신도들에게는 녹음을 매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예배당 예배의 중단 등, 여러가지 일을 겪으며 그래도 성도들의 신앙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배출석도 80퍼센트는 회복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시련 속에서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전 교인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부지방회 최형철목사 위임식 거행 오카야마교회서 코로나 자속으로 관계자만



지난 5월31일 주일 오후에 오카야마 (岡山) 교회에서 최형철목사의 위임식이 코로나19의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위임식 순서를 맡은 목사, 장로, 그리고 오카야마교회 신도들이 모여 임시당회장 이중재목사의 사식으로 은혜롭게 거행되었다.

예배는 양영우목사의 <신실한 지도자> (달1 : 5-9)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서부지방회장 이중재목사의 사식으로 거행된 목사 위임식은 위임목사 소개, 서약과 기도, 선포로 이어졌다.

금번 오카야마교회에 위임 받은 최형철목사는 1966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996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97년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200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관서지방회 히라오카(枚岡)교회를 목회하였다.

가족으로는 부인 서순남 및 3녀가 있다.

고베교회 金武博長老將立式挙行 재일 2세 장로서 재일선교에 봉사



지난 6월14일 (주일), 고베교회에서는 김무박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많은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회장 한세일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이중재목사가 '예수의 팬인가, 제자인가' (마16 : 24~28)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서 장로 장립식은 서부지방회장 이중재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서약, 안수기도, 선포 및 권면과 축사 등으로 이어져 기쁨이 넘치고 은혜로운 식전이 되었다.

이번에 장립을 받은 김무박장로는 1956년 고베에서 출생한 재일 2세이며, 1997년부터 서리집사로 충실히 고베교회에서 봉사해 왔다.

부인은 전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인 이현지 권사이다.

30교회에 위로금 전달 코로나자속으로 전국의 곤란 교회에

코로나 19 감염 영향으로 제일대한기독교회 산하 각 교회가 예배 및 각종 집회 등의 행사를 자속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을 통하여 감염의 위험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상황에 4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건축비 상환금, 예배실 및 목사 사택 등의

월세 등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총회에서는 사회위원회와 총회 임원회가 협의하여 각 지방회로부터 추천 받은 30교회에 10万円씩의 위로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금번 전국의 30교회에 전달된 위로금 300万円은 과거 2011년 동일본대진재를 비롯하여 몇 번에 걸친 재해 구호를 하고 조금씩 남아 있던 잔금을 긴급재난구호금으로 사회위원회가 맡아 있었는데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 산하 전국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총간사)

특별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동경교회 집사 정홍주

일제 강점기 아골골짜기 같은 이 일본 땅에 동경교회를 세우시고 제일대한기독교회와 함께 올망졸망 성장해 온 홀어저 있는 교회들과 더불어 주님나라를 기다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뒤에서 기도로 응원해 주신 제일대한기독교회 소속 목사님들과 여러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 동경교회는 넉넉한 만행으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라도 눈치 안 보고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큰집 같은 동경교회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6월 셋째 주일에 동경교회에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김성제목사께서 일부 신자들의 저항에 의해 되돌아 갔습니다. 그들은 김해규목사와 교단탈퇴를 도모하여 로펌에 거액의 계약금을 걸었다가 그것이 수포로 끝나자 이제는 (동경교회 지킴이)라는 명칭으로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6월 첫 주일과 둘째 주일 임시당회장 김병호목사의 교회출입 저지 및 설교 방해에 이어 3주째 계속되고 있는 예배 방해입니다.

김해규목사는 2015년7월2일 제일기독교회 총회에서 면직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회 판결에 불복하고 더욱 교회를 파행 운영하고 있던 김해규목사를 신자 48인이 사회 재판에 호소하여 약 4년 7개월에 걸친 심의 끝에 2020년 2월 27일 대법 최고 재판장은 「김해규는 동경교회 대표 책임 역원이 아니다」라는 원고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김해규목사는 동경교회에서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정상화가 이루어 지는바 싶었는데, 사단의 공략은 한층 강하게 역사하여 교회를 다시 어두운 먹구름으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약 7년에 걸쳐 동경교회 신자 모두가 겪었던 고난의 여정을 회상해 봅니다. 사단의 첫번째 공략은 분열과 분쟁으로 편파기가 시작됨을 영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우리 목사 뜻을 따라 교단총회 탈퇴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사편.
- 교단 총회법과 교회법으로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가자고 시작한 지금의 원고편.
- 이편도 저편도 싫어요 중립과 방관자(사실은 서명등 목사편 분들의 요청에 응하는 상당수의 중립도 있음).
- 이편은 이래서, 저편은 저래서 안된다고 말하는 재판장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 조용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신 분들

도 있습니다.

분열, 분쟁 사단의 다음 작전은 목사편 숫자 불리기였습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무더기로 뽑아 놓은 일꾼들, 안수집사, 권사, 심지어 소속 없는 장로까지 불법으로 세워 교회는 날이 갈수록 무법천지가 되어갔습니다. 김해규목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신자는 어디에도 소속이 없어졌습니다.


피켓을 들었고 원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주님께 여쭙고 내린 결단이었지요. 「주님 왜 동경교회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왜 김해규목사를 동경교회로 보내셨어요?」

목상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경교회와 너를 깨우려, 교만한 동경교회와 너를 고치려, 동경교회는 김해규목사를 감당 할 수 있기에 거기에 보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들어 쓰시려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붙잡은 저희들의 손 끝까지 놓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좀 망가지면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케 하시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주신다면 감내하겠습니다. 눈물의 고백을 드립니다. 「목사 내쫓은 원고 48인」 주님께서 허락하신 꼬리표입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목회자로 어디에서도 자랑스런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제직회 공동의회 각종 회의 시간이면 그동안 편들이 갈리어 서로 소통이 막혀 버린 신자들이 크게 충돌하며 야유와 몸싸움까지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비명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와도 의장으로 단상에 서있는 김해규목사는 자신의 필요한 안건이 통과 처리되면 의연히 마침 기도를 한 후 회의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다투지 마세요.) 눈물의 하소연도 좋고, 거룩한 분노라도 좋고, 싸움을 멈추도록 제지하는 그 한마디를 우리는 얼마나 원했던 가요?! 3년 넘게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와 (여러분 내가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목회자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 다가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끝내 그 한마디를 남기지 않은 채 동경교회를 떠났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우리 모두 목회자를 사랑했음을 주님은 아시겠지요. 사울을 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무엘을 위로 하시듯 이제는 감탕처럼 녹아내린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고 계십니다.

韓日对照聖書販売




各ページ左に韓国語(改革改版)、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 A5版変型・1772ページ
- 価格：3,0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对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对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